



둘리쌍문근린공원 산책로 ⑥

둘리와 함께 산책하실래요?

걷는구간	한양아파트 1동 앞 버스정류장→둘리쌍문근린공원 입구(한양7차아파트 703동 옆)→청심천→ 둘리유아숲체험장→둘리뮤지엄→세심천 약수터→ 여행공원 →우이빌라 앞 버스 정류장
걷는거리	2.5km
소요시간	1시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둘리쌍문근린공원’은 도봉구 방학3동, 쌍문 1동, 쌍문2동, 쌍문4동에 걸쳐있으며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쌍문근린공원’이라 불렀는데 공원 안에 만화속 주인공인 ‘아기공룡 둘리’를 주제로 한 조형물이나 흥미진진한 시설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둘리쌍문근린공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약 5천 평 규모의 공원에는 목련, 느티나무, 팔배나무, 때죽나무 등 30여 종의 울창한 나무들과 벌개미취, 구절초, 맥문동, 원추리 등 20여 종의 식물들이 잘 관리되어 있어 입구에 들어서면 숲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든다. 숲 속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약수터도 나오고, 숲속 놀이터도 만나고, 뮤지엄이나 도서관도 둘러볼 수가 있다. 한 걸음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이 모여있다 보니 ‘세대 공감 휴식처’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쌍문근린공원’에 왜 둘리가 등장할까? 만화에서 빙하 타고 내려온 둘리가 처음 발견된 장소가 바로 쌍문동이기 때문이다. 고로 도봉구 쌍문동은 ‘아기공룡 둘리’의 고향이다. 쌍문동 출신의 둘리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유명인이 되어 지금은 공원 곳곳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돌리뮤지엄은 도슨트를 따라 찬찬히 둘러보면 총 2시간이 걸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20분 단위로 입장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http://www.doolymuseum.or.kr> 문의 02-990-2200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쌍문역 버스정류장에서 도봉05번 또는 도봉06번 버스로 환승 후 쌍문현대1차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한양2,3,4차 아파트 1동 앞을 지나 한양7차아파트 703동까지 걸어가면 공원 입구가 나온다. (도보로 약 9분 정도 소요)

☎ 02-2091-3762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화장실과 휴게시설 돌리뮤지엄에 있음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공원 산책로와 연결된 ‘돌리유아숲체험장’과 ‘돌리뮤지엄’에서는 어린 아이 모두 자연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돌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돌리뮤지엄 입구에 들어서면 2개의 건물이 있다. 왼쪽은 돌리와 친구들이 숨어있는 숲 속에서 뒹굴거리며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오른쪽은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마다 만화 속 에피소드를 테마로 꾸며져 있다. 요리 보고 저리 보다 보면 아이들은 돌리와의 새로운 추억을 쌓고, 3040 부모 세대들은 그 옛날 돌리와의 추억에 빠지는 시간이 된다.